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A형)

(가) “젊은 친구.”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의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 반사 훈련이 되어 있던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매우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 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그림짜리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러니까 덕성(德性)의 반은 적어도 병 속에 지참하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야.”

(…)

“위험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야. 남녀들은 때로 아드레날린의 자극이 필요하니까.” 총통이 대답했다.

“네?” 야만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다.

“그것은 완전한 건강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이피에스(V.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일세.”

“바이피에스라고요?”

“격정 대용약(Violent Passion Surrogate)이란 뜻이야. 매일 1회씩 정규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증만시키는 요법일세. 공포와 분노의 효과를 가져오는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일세. 데스테모나를 살해하고 오셀로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 같은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총통이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알래스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세계 전역의 다채로운 고유문화들은 산업화가 조장하는 획일화된 문화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런 침략의 주역이 되었던 현대의 정복자들은 우리가 ‘개발’, ‘광고’, ‘미디어’, ‘관광’ 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서구 스타일의 줄무늬 옷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어느 해엔가는 라다크와 스페인의 산골 마을에서 동시에 똑같은 장난감 가게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그 두 가게는 모

두 금발에 푸른 눈을 한 바비 인형과 기관총을 든 람보 인형을 팔고 있었다.

획일적인 산업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극적인 일이다. 각각의 문화들이 붕괴되면서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값진 지식들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갈등과 사회 붕괴 과정이 뒤를 이었다.

서구의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 하나뿐인 표준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더욱 경쟁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 감에 따라, 그런 성향들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 치부해 버리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구 사회의 사고방식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공격적인 것이며 진화론적 투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회의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선과 악의 내재성을 믿건 안 믿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전제는 모든 정치적 이념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청소년기에는 인생에서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미리 경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제 생활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생애 주기에 따라 수입과 소비 지출의 크기는 달라진다. 한 개인의 생애 주기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취업 준비기, 결혼과 자녀 양육기, 자녀 성장기, 노년 준비기, 노년기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취업 준비기: 이 시기는 학업기에 해당하며, 이 동안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소비 생활을 한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탐색 및 장래 직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결혼 및 자녀 양육기: 이 시기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얻게 되며 주택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 생활비, 자녀 양육 비용, 주거 비용 등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
3. 자녀 성장기: 이 시기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로, 다른 시기보다 가계 지출이 가장 많다.
4. 노년 준비기: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노년을 준비하고 저축에 힘써야 한다.
5. 노년기: 근로 소득이 없는 시기이다. 노년기 전에 준비한 저축 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시기에는 연금,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주 수입원이다.

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불행해질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기술하시오. (400 ~ 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에서 ‘행복한 삶’과 ‘경제 생활 계획’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술하고, 그것을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1,100 ~ 1,2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A형)

■ 출제 의도:

세종대학교의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출제되었다. 이번 논술고사는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올바로 측정하기 위해, 텍스트 이해력 및 분석력, 논증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논술고사의 모든 지문을 올해 고3 수험생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였다. 따라서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응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접근성을 지닌다.

세종대학교는 학원 수강 등 별도의 사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험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6학년도 논술고사 대비 모의시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 설명회를 통해서도 출제 의도와 문제의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모의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 동일한 수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 또한 모의시험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것은 세종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이다.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을 궁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것은 논술고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입시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문항별로 보면, <문항 1>은 제시문 (가)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이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의 문맥과 핵심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은 텍스트를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문항 2>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외에, 핵심 용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내용이나 주장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심 용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서로 다른 내용과 문맥을 갖는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논증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고 연관 짓는 창의적 사고 능력 또한 요구된다.

■ 출처:

- (가) “멋진 신세계”,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II>(신사고)
- (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미래엔)
- (다) “금융 생활과 재무 설계”,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씨마스)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채점기준표(인문계열 A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불행해질 권리”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평가	100	150	
	표현력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평가	25		
	정서법		원고지 사용법을 포함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	25		
2번 대문항	이해력		‘행복한 삶’과 ‘경제 생활 계획’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평가	50	350	500
	분석력	(가)를 논거로 활용	제시문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아 비판했는지 평가	75		
		(나)를 논거로 활용	제시문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아 비판했는지 평가	75		
	구성		단락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	50		
	표현력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지 평가	50		
	정서법		원고지 사용법을 포함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	50		

2016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A형)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라는 (다)의 주장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획일화함으로써 경쟁을 가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불행해질 권리’ 가 어떤 권리인지 기술하시오. (400 ~ 500자)

제시문 (가)의 무스타파 몬드가 통치하는 사회는 ‘소마’로 상징되는 과학 기술이 사용되어 인간의 충동과 감정이 통제되는 사회다. 이 사회가 지향하는 삶은 쾌락과 안락이 보장된 삶이다. 하지만 야만인은 과학 기술을 이용한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다. 그의 이러한 요구는 사랑과 분노, 공포 등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인간 본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요구는 관리되고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해도 자유가 보장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야만인이 요구한 ‘불행해질 권리’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회복한 삶을 살 권리를 말하며, 또한 과학 기술을 통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살 권리를 말한다.

2. 제시문 (다)에서 ‘행복한 삶’과 ‘경제 생활 계획’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술하고, 그것을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1,100 ~ 1,200자)

제시문 (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청소년기에 생애 주기에 적합한 경제 생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는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동시에 경제적 안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에서 제시한,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 주기별 경제 생활 계획과 준비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필요조건인 것은 아니다. (가)에서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는 야만인의 경우처럼, 인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런 사랑, 불편한 삶,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라는 (다)의 주장은 삶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삶을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 하겠다.

삶의 표준화와 획일화는 많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서구 산업 문화에 의해 파괴된 라다크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획일적인 산업화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그것이 하나의 표준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사라졌고, 인간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경쟁은 당연시되었고, 사회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따라서 만약 (다)의 주장처럼, 인생의 출발선에 선 청소년들이 모두 다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이들 간에는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삶이 서열화 되면서 인생은 황폐화 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